



오는 9월 1일부터 강원도 洪川, 경북 軍威, 전북 沃溝 등 3개지역에 시험적으로 醫, 藥분업을 처음으로 施行한다.

先進國에서 오래전부터 醫, 藥分業을 실시해오고 있는 것은 國民保健을 위해 藥의 誤用과 濫用으로 부터 藥害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人醫에서 보다는 더 시급한것이 獸醫界의 藥害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몇해전 부터 家畜藥品도 그 種類가 여러가지 生産이 되어 養畜農家나 臨床獸醫師 들의 藥品購入이 한결 쉬워졌고 処方 역시 多樣하게 할 수 있어 반가운 일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家畜藥品의 유통과정이 질서가 너무 문란하여 養畜農家에서 자유스럽게 多量 구입이 이루어져 藥의 오용 및 남용을 초래하여 결국 우리가 이용할 畜産物에까지 抗生劑를 비롯한 설파제, 糞몬제의 오염을 念慮하게끔 된다.

몇해전 某大學 教授의 달걀에 항생물질이 들어 있다는 연구발표가 신문紙上에 보도됨으로써 養鷄業者들의 심한 反撥과 물의가 일어난 일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生産되는 肉, 乳, 卵을 항생제를 비롯한 各種醫藥品の 검출을 한다면 과연 人體에 害를 끼칠

## 獸醫界에도 醫, 藥의 分業을

玄 德 奉

再生家畜病院

정도는 아닐지 의심스럽다.

우리주위는 온갖 공해로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加工食品보다는 自然食品으로 돌아가자는 向간의 캠페인도 만약 抗生劑를 비롯한 여러 藥品에 오염된 畜産物을 먹게된다면 자연식품 역시 믿지 못하는 時代가 오지 않을까?

요즈음 소규모 農場에서도 自家治療는 常識化되어 있고

몇해의 경험이 있는 牧夫라면 I.V는 물론 심지어 H.C.G. 푸로겐, 에스트론 등 糞몬치까지 할 정도이므로 앞으로 臨床獸醫師의 治療領域을 자가치료를 하다 不治가 되어 버린 痼疾患畜이나 아니면 더 오랫동안 治療로 죽은 家畜의 檢案정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러한 風潮가 벌써 이곳에는 나타나기 시작하여 본인



이 아는 獸醫師들 中에는 轉業을 하신분도 계시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분도 계신다.

大學까지 많은 물질적 投資를 甘受하고 時間的 努力을 기울여 따게된 수의사면허증을 轉業으로 썩히게 된다면 個人的으로나 國家的으로 큰 손실이고 앞으로 畜産發展을 期待하기가 또한 힘들지 않을까?

지난해 부터 실시하고 있는

獸醫師補修教育이나 每年 실시하는 講習會가 이런 現實을 直面해있는 임상수의사들에게 진정한 교육의 意味를 나타내며 실지 임상에 어느정도 反映할 기회가 있을지 疑問스럽다.

獸醫師會誌 및 學會에서 가끔 수의학의 發展을 學論하고 있지만 임상수의사들이 부딪히고있는 어려운 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연구기관에서의 理論的 發展은 있을지언정 임상수의학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獸醫師의 本分인 公衆衛生과 國民健康의 一翼을 담당하는길은 하루 빨리 獸醫界에도 醫, 藥分業을 實施해야겠다.

이길만이 醫藥品오염의 畜産物生産을 事前에 막고 모든 獸醫師들의 권익옹호와 社會的地位를 찾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런 본인의 提議가 養畜農家나 牧場관계자 되시는분은 家畜病院에서 診療 및 處方수수료와 藥品商社에 藥品구입수수료등 2중으로 經濟的 부담을 내세우시겠지만 藥의 오용과 남용으로 소모하는 비용과 自家治療의 失敗로 죽게되는 家畜의 손실을 생각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畜産發展을 진정으로 바라는 畜産人이라면 누구도 異議를 갖지 않을 것이다.

정의로운 社會의 구현을 국정운영 지표로 삼는 제5공화국을 맞아 여러分野에서 새로운 바람이 일고있는 이때 우리 獸醫師 및 畜産人도 긴 眼目으로 醫 藥分業을 實施하여 畜産發展에 모두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